만나고 싶었습니다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30년 포교사 길…“특별하지 않다 다만 꾸준했을 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3월 중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계종 포교사단 사무국에서 만난 강의수 단장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만큼의 그의 이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고등학생 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시작된 신행생활은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후 조계종에서 포교사 제도가 막 태동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1996년 포교사가 됐다. 포교사 2기, 전문포교사 10기로 활동하며 불교에 깊이 몰입해 온 시간이 30년. 그는 이제 조계종 포교사단을 이끄는 단장이 됐다.

지난해 10월 제14대 포교사단장에 당선 확정된 그는 두 달 뒤인 1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포교사단 총재인 진우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년간의 단장 임기를 시작했다.

강 단장은 “특별히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꾸준함 속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 포교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불법을 전하는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포교사단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스님들이 사찰의 모든 것을 운영·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반 신도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 즉 수행과 신행을 함께 하는 재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지금의 포교사 역할을 “고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사찰에서 봉사하거나 행사 진행을 돕는 수준을 넘어 사회 속에서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 단장이 취임 후 ‘고급화’를 키워드로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장 취임과 함께 내건 슬로건 ‘포교사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도 같은 맥락이다.

강 단장은 “지금까지 포교사 활동은 봉사나 지원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포교사들이 사회적 역량과 지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포교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급화’를 위해 그가 제시한 포교사단의 핵심 사업은 불교문화해설, 명상상담, 그리고 불교 의례 교육 등 크게 세 가지다.

‘불교문화해설사’ 제도는 사찰과 문화유산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적 의미와 체험을 함께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포교사들이 사찰의 역사와 문화, 불교적 가치를 설명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특히 다문화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강 단장은 과거 포항에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얼문화포럼’ 대표로서 지역청소년 문화길잡이, 지역고승연구를 위한 학술활동, 역사문화탐방단 운영 등을 펼치며 역사를 넘어 포교활동에 힘써 왔다. 또 20여 년간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기림사 등에서 해설을 맡았다.

강 단장은 당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경주와 불국사 일대를 탐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반응에서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려 주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14대 포교사단장 2년 임기 시작
문화해설 · 명상상담 · 불교의례 등
포교사 역량 고급화 목표 삼아

봉사자 넘어 수행 재가자 발원
포교사 1만 명 시대 목표로
“불교 움직이는 조직 만들 것”

이에 따라 불교문화해설사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개설된 불교문화해설사 1급의 경우, 현재 587명이 취득한 상태로 포교사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포교사단은 교육과 함께 불교문화해설을 통한 포교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은 ‘명상상담사’ 양성이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 명상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불교는 그 흐름을 충분히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강 단장은 “힐링 명상, 요가 명상, 자연 명상 등 명상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선과 명상의 전통을 지닌 불교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교 고유의 명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교사단은 선명상을 기반으로 상담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상상담사 양성 교육을 진행 중이며 이미 1급과 2급 자격도 배출했다. 강 단장은 “명상 지도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마음 치유까지 함께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불교 의례 교육이다. 강 단장은 포교사가 불교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에서 법회를 진행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때 포교사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례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포교사단은 인묵스님을 모시고 2021년 연불과 의식, 시다림 등 기본적인 불교 의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시작과 함께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지만 2024년 교육을 재개해 현재까지 41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포교사가 법복을 입고 활동할 때 그 모습이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동안 강 단장의 입에서 반복된 단어 ‘꾸준함’. 포교사단의 핵심은 결국 강의수 단장의 삶과 궤적을 함께한다. 고등학생 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시작해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을 거쳐 포교사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다만 ‘한번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30년을 이어 왔을 뿐이다.

강 단장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은 분명하다. 이 결정이 부처님 법에 맞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쌓여 지금에 이르러 하나의 결과가 됐다.

현재 포교사단에는 약 4800명의 포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강 단장의 목표는 ‘포교사 1만 시대’다. 1만 명 규모의 조직이 갖춰지면 전국 단위의 불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고, 조직의 결속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포교사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법을 전하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만큼 규모가 확대될수록 종단을 외호하고 불교를 뒷받침하는 힘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단장은 포교사단의 성장은 결국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그 길을 걸어 온 만큼 단장으로서의 포부도 단순하다.

“앞으로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 법 전하는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선택으로 단장이 된 그는 포교사단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수 단장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그는 누구보다 특별한 길 위에 서 있다.



강의수 제14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꾸준했을 뿐이라는 것. 1996년 포교사 2기로 출발, 30년을 불교에 깊이 몰입해 단장 자리까지 왔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처님 법 전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2025년 12월, 제14대 포교사단장 임명장을 받았다.



‘우리얼문화포럼’ 대표로서 불교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수막 왼쪽 하단이 강의수 단장.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